Life p/12

제주도 면세점 누구 품에

metro®

메트로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제316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최용수, 43세에 링 복귀

콩가루된 SH공사

박원순캠프 출신 변창흠사장 낙하산 인사에 사분오열 p/16

사옥 곳곳에 규탄 대자보… 경영본부장실 대못 폐쇄도

박원순 서울시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BMW 전륜구동 첫선 p/9

BMW Active Tourer

p/16

이인규 '노무현수사' 폭로… 왜 침묵하나

<우병우>

노 정부 때 민정라인 인사… "우병우야말로 핵심 중 핵심"

"우병우야말로 핵심 중 핵심이었다. 사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라인에 사안별로 하나하나 따로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

이른바 '이인규 폭로'가 터져 나온 25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논두렁에 버려진 명품시계' 보도는 국가정보원의 공작이었다는 이인규 당시 대검 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이 전 중수부장이 책임자이긴 했지만 실제 수사는 우 민정수석에 의해 이뤄졌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우 민정수석을 대검으로 불러다 놓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우 민정수석은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이 전 중수부장보다 더 진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의미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을 중심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팀과 국정원이 연결돼 있었다며 "청와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수사팀의 핵심은 우 민정수석, 국정원의 핵심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다.

그는 "원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말이 무성했다"며 "검찰이나 국회를 맡았던 국정원 직원들과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생긴 인연으로) 만날 때면 '국정원이 무슨 동네 심부름센터냐'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불만 정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했다.

결국 2009년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원 전 국정원장, 우 민정수석으로 이어진 고리를 살펴야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 민정수석의 입은 열릴 기미가 없다. 우 민정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와중에도 승승장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2013년 5월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뒤 올해 1월 민정수석에 올랐다. 입을 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전 중수부장이 입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 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 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다용도·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한민구 장관 사드 도입 가능성 시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 가능성을 묻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도입 계획이 없다는 게 분명하냐"고 재차 확인하자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이라는 뜻이다.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주한 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우리 정부의 사드 직접 도입이 아니라도 주한 미군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나오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 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게 중국 안보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재벌문제 해결 손잡은 안철수·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철수·박영선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손을 맞잡고 '재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취임 2주년… 첫 직원 조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 직원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은 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증세논쟁 변죽만 울리지 마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여야에 '돌직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변죽만 울리는 소모적인 복지·증세논쟁을 멈추고 투명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국회를 양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돌직구를 날렸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며 "각 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며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심상정. /연합뉴스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정치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 복지 목표로 "향후 10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수단으로는 "법인세·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와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과 1만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당·정·청 관계 역전…유승민 '국정기조 대수술' 예고

"과감한 수정 생각할 시점"…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제기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정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기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며 "2년 전 계획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며 "소통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정권 3년차의 시작점에서 국정 과제를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기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비판적 시각을 내비쳐온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청이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질타와 원망을 산 게 사실"이라며 "정부 측이 모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 "야당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평소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의장은 최근 발표된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발표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사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이완구 총리 국회 데뷔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이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공식행사다. /연합뉴스

문재인, 중도층 공략 '큰 걸음'

"북한인권법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진보 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눈감아 왔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이어온 외연확대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등한시하거나 모른체 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안 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북한 인권 신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 다 같은 마음"이라며 "우리 당은 원래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전단 활동 까지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근간으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쟁점별 입장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극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 대표 스스로 밝혔듯 새정치연합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규정,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을 해치는 행위니만큼, 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IS 가담 김군, 현행법 처벌 가능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테러단체 가담과 활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테러 단체 단순 가담·훈련 참가·FTF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11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주재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등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78호를 이행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안보리 결의 2178호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해 '테러 행위나 테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나 거주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군이 IS에 가담했다면 김군 역시 FTF에 해당한다.

형법은 111조에서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예비·음모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테러단체에서 살인·학살·고문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관련 형법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 처벌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시리아·이라크 등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라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시리아나 이라크 등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우리나라 입국 내지 경유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FTF가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부처 협의 결과 FTF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현재도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해당 법률이 FTF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법체제의 개선과 내지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블랙 이글의 축하비행 연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이 2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상공에서 '제96주년 3·1절 독립기념관 기념행사' 축하비행 사전연습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얼어붙은 허드슨 강 북미 동북부 지역에 기록적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배 한 척이 얼음을 헤치며 이스트 강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수습하면 또 터지는 해킹

미국, 사이버 공격 골머리… 해커 현상 수배

잇따른 해킹 사건과 수습 문제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소니 픽쳐스가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 개봉 문제로 사이버 테러를 당한 지 꼭 한달만이다. 앞서 북한은 소니 픽쳐스의 북한 해킹 의심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지프 데마레스트 FBI 사이버 범죄 부장은 "소니 픽쳐스 해킹 원인은 내부 소행도 아니고, 북한이 해킹한 것처럼 위장한 단체도 아니다"며 "소니 해킹은 북한의 해킹 수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소니 픽쳐스 해킹 파문으로 영화사업 총책임자였던 에이미 파스칼 전 공동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FBI가 소니 픽쳐스 해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소니 픽쳐스의 새로운 공동대표로 톰 로스먼이 선임돼 주목을 모았다.

아울러 FBI는 해킹 심각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해커 예브게니 미하일로비치 보가체프(31)에 300만달러(약 33억3000만원) 현상금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해킹 범인을 잡지 못해 국제 현상금을 제시한 것이다. 보가체프가 이끄는 해커 집단은 2011년부터 컴퓨터에서 은행계좌·비밀번호를 빼돌리는 악성코드 '게임오버 제우스'를 퍼뜨려 전세계 컴퓨터 50만~100만대를 감염시켰다.

미국의 해킹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워싱턴DC의 도시 연구소는 납세 신고서 시스템 해킹을 당해 기부금을 낸 단체와 개인의 납세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수사 당국은 이번 해킹으로 60만~70만개의 조직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9m 캠프파이어 새해 맞이 축제

metro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 고리키 공원에서 진행된 초대형 캠프파이어 행사가 화제다.

24일 메트로 러시아는 사순절 직전 일주일 동안 열리는 마슬레니차 축제를 보도했다.이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높이 9m에 달하는 '겨울안개'라는 철제 조형물이다. 캠프파이어를 위해 마련된 이 조형물은 어두운 구름을 상징한다.

조형물을 제작한 올라 레스니코바마는 "겨울을 상징하는 구름 조형물에 불을 붙이는 것은 겨울을 태워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 한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원을 찾은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며 "겨울은 물러가라! 봄아 오너라"고 외쳤다.

고리키 공원 관계자는 "마슬레니차 축제 기간 동안 공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원을 담은 메모를 적는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우한 이웃을 위한 1루블(약 18원)만 기부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모 이벤트에 참가했다는 한 소년이 "강아지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고 메트로 러시아는 전했다. /정리=이국명기자

Туча унесла с собой беды москвичей

애플 몸값 = 사우디 GDP

시가총액 7700억 달러 '세계 1위'… "한국 뛰어 넘을 수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세계 19위(2014년도 기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약 7779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조정도 이어지고 있어 세계 13위인 한국의 GDP(약 1조4495억 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의 주가가 지난 23일까지 최근 9거래일 중 8일간 신고가 행진을 이어 가면서 세계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였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침없었던 상승세 탓이었는지 24일 애플주가는 다소 주춤거리며 0.62% 하락한 132.17 달러로 끝났지만 시가총액은 약 770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이는 세계 20위인 스위스(6790억 달러)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에 육박한 수치다.

1980년 12월 기업공개(IPO)를

한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까지 5만600% 넘게 급증했다.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던 2007년 1월 시가총액(760억 달러)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늘어났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부재로 흔들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을 비웃듯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한 2011년 8월 이후만 따져도 시가총액은 2배나 증가했다.

다른 기업과의 격차도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2위인 엑손 모빌(약 3850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한다. 특허전쟁 중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약 203조500억원)보다는 4배나 많다.

◆팀 쿡 취임 후 2배나 늘어

애널리스트들도 애플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끌어올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애플의 목표주가를 145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제일상하이증권도 목표주가를 165 달러까지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헤지펀드 투자가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애플의 적정 주가를 216 달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이칸의 주장과 같은 수준으로 애플 주가가 오른다면 애플 시가총액은 1조2600억 달러(약 1400조원)로 우리나라 GDP와 맞먹는 수준이 된다.

아이칸은 "2013년 8월 13일 애플 주가가 66.77달러에 불과했다"며 "비교적 단기간에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이런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美 증시 어디까지 오를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92.35포인트(0.51%) 상승한 18209.19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도 5.82포인트(0.28%) 오른 2115.48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AP 연합뉴스

취미로 산 복권 무려 3000억원 당첨

美 70대 이민자 사상 최대 행운

26-32-44-45-58, 보너스 번호 11. 은퇴한 70대 이민 노동자가 행운의 여섯 숫자로 미국 일리노이주 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당첨금을 거머쥐었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뉴스에 따르면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운전수로 생계를 이어 온 헤이수스 다빌라(70·사진)씨가 일리노이주 복권 역대 최대 규모인 2억6500만 달러(약 3000억원)에 당첨됐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출신인 그는 여섯살 때 미국으로 왔다.

다빌라는 이날 시카고 도심에서 열린 복권 당첨 행사에 참석해 "수년 전부터 취미 삼아 매일 복권을 구입했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권 당첨금으로 큰 잔디밭이 있는 넓은 집을 사고 싶다. 평소 친분있는 자선단체에 기부도 할 것"이라고 당첨금 운용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16일 추첨된 '메가 밀리언 복권'은 당첨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 로또 복권과 추첨 방식이 같은 이 복권은 다섯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 한개로 구성됐다. 다빌라는 자택 인근 도시의 한 주유소에서 기계가 임의로 번호를 뽑아주는 '퀵픽' 방식으로 복권 5달러(약 5600원) 어치를 샀다. /장윤희기자 unique@

카드사, 작년 영업수익 첫 20조원

현대·삼성·BC·우리·하나카드 순익 두자릿수 증가…"정보유출에도 선방"

지난해 8개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카드 등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총 20조28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9조4158억원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카드사 총 매출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분사한 우리카드의 1년치 실적이 첫 포함되기는 했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경기침체 등을 감안했을 때 선방한 셈이다.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8607억원으로, 2013년의 1조7897억원 보다 4.0% 증가했다.

특히 신한카드와 KB국민·롯데카드를 제외한 5개사의 순이익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36.9% 늘어난 2235억원이다.

우리카드도 작년 출시한 상품군이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85.6% 증가한 891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16억원이 늘어난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삼성카드는 10.1% 늘어난 3042억원, 비씨카드는 18.9% 증가한 123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635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순익에 국민행복기금 매각 이익(518억원) 등 일회성 이익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유출로 홍역을 치른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순이익은 각각 13.4%, 3.2% 감소한 3327억원, 1474억원으로 나왔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990.47 (+14.35)

코스닥 616.57 (-4.74)

금리(국고채 3년) 2.04 (-0.02)

환율(원·달러) 1098.80 (-13.00)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2회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과 수상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은행, 올해 中企대출 38조원 더

국내 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에 38조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는 56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역별 목표 순증액은 시중은행 19조9000억원, 지방은행 6조8000억원, 특수은행이 11조7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인 35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더 늘어난 수치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12년말 459조7000억원, 2013년말 487조원, 2014년 말 522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의 중기대출 확대 정책과 기술금융 취급 확대(8.9조원) 등으로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명목 GDP 대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비중도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여건도 ▲은행권 혁신성 평가 ▲보수적 금융관행 변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등으로 개선됐다고 꼽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은행들은 기업의 자금애로를 감안해 중소기업대출 확대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 성과지표에 중기대출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수적 여신관행 혁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토록 하겠다"며 "은행 혁신성 평가를 정책자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주택금융공사, 3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하나은행·외환은행 창구를 통한 't플러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00%(10년)~3.25%(30년)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달에 이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은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퇴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전성은 금융사 최우선 덕목"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퇴임식서 언급
농협금융 회장대행에 이경섭 부사장 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2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퇴임식을 갖고 수익성과 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임 내정자는 "농협금융이 수익력 있는 금융회사로 탈바꿈돼야 한다"며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수익력 있는 금융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농업·농촌을 위한 수익센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꼽았다.

그는 "경영관리와 영업활동이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되고 이뤄져야 한다"며 "비용 또한 그 절대 규모보다는 수익을 내는 비용인지 여부로 관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내정자는 또 "수익을 내려면 건전해져야 한다"며 "건전성은 금융회사의 최우선의 덕목이자 수익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너지를 일으키는 일은 농협금융 경쟁력의 원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인재 영입 등 농협금융을 지탱해 줄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임 회장의 빈자리는 이경섭 농협금융 부사장(경영기획본부장)이 당분간 맡게 됐다.

농협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으며, 다음 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회추위는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1명, 사외이사 2명, 이사회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4명이 찬성해야 회장으로 내정된다.

현재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백아란기자

1월 전·월세 거래 전년보다 7.8%↑

10건 중 4.3건은 월세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만에 가장 높은 43.5%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0만9532건으로 지난해 동기(10만1605건) 대비 7.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1월이 이사철 비수기라는 점에서 전월(11만7431건)보다는 6.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지난해 1월 46.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이 6만9235건, 지방이 4만297건으로 각각 전년 동월에 견줘 9.2%와 5.5% 늘었다. 특히 서울과 강남3구가 12.9%, 10.8% 증가해 3만5402건, 6785건의 거래량을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0% 늘어난 5만1844건, 아파트 외 주택이 6.8% 증가한 5만7688건이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14.2% 증가한 6만1897건, 월세는 0.5% 늘어난 4만7635건이다.

전세 실거래가는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7억원에 계약서를 적었고, 경기도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49㎡도 1억70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박선옥기자 pso982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신한카드 "고객소리 듣는다"

고객 패널 발대식 개최

신한카드는 25일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해 '따뜻한 금융 고객 패널'(이하 고객 패널)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고객 패널 제도를 도입한 신한카드는 올해 모두 75명의 고객으로 이뤄진 3개 패널 그룹을 운영한다.

우선 '소비자보호 자문단 그룹'은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패널로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신용카드에 관심이 많고 신한카드에 대해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로 이뤄진 '따뜻한금융 서포터즈 패널'은 서비스 품질 평가와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따뜻한금융 온라인 패널'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카드를 쓰면서 느낀 개선 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게 된다.

한편 신한카드 고객 패널은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배송, 상담센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영역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해 신한카드에 전달한다.

작년에는 고객 패널이 제안한 총 451건 중 57건이 최종 채택돼 실제로 업무에 반영된 바 있다.

조성하 신한카드 부사장은 "신한카드는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 패널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OK저축銀, 고리 대출 '파문'

대학생에게 장학금 주면서 서민대출은 연 30%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등 국내 최대 대부업체를 보유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이하 아프로그룹)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서민에게는 고리의 대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재일교포 출신인 최윤(사진) 회장이 설립한 소매금융사다.

지난해에는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대학생들에게 높이 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다.

아프로그룹이 출연한 러시앤캐시 배정 장학회는 지난 14일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가 함께하는 제3회 행복나눔등록금캠페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700명의 대학생에게 올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다.

러시앤캐시 배정 장학회는 아프로그룹이 지난 2002년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아프로그룹은 매년 이 장학재단에 30억원을 기부해 전액정기장학생, 한민족 글로벌 장학생, 스포츠 장학생, 행복나눔 장학생 등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로그룹은 앞에서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고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중 개인 신용대출 취급액이 많은 35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서면점검 결과 OK저축은행은 29.7%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시했다. 이는 KB, 신한, BS 등 금융지주계열 5개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15.3~18.6%)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 고객을 저축은행로 이관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기존 캐피탈사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맞지만 30% 이상의 고리 대출업체도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 대출에 대해 "회사 규정상 대학생은 신용등급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업은행, 'IBK나누미 봉사단' 발대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학생 봉사단인 'IBK나누미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앞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과 봉사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기보,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우대

보증료 0.3%p 감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5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센터 관련 기업은 전담인력을 통해 예비창업자부터 성장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종합적인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기업은 ▲혁신센터 입주기업 ▲혁신센터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창조경제타운에서 추천받은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예비창업자 포함)이다.

기보는 또 우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0.3%P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90%로 우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보증심사 방식을 완화하고 혁신센터 전담직원을 통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보에서 시행중인 기술경영컨설팅과 보증연계투자, 지방기업 우대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센터는 지자체와 대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연계강화를 바탕으로 지역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작년 3월 대전혁신센터를 시작으로 7개 혁신센터가 운영중이다.

기보 관계자는 "혁신센터 관련기업이 지역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부산·경남은행, '행복한아파트 앱' 사은 이벤트

BS금융그룹은 25일 '행복한 아파트 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행복한 아파트 앱'은 은행 방문 없이 아파트 관리비 실시간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해지가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은행사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공동으로 진행된다.

부산은행은 '행복한 아파트 앱'에서 부산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 300명을 추첨해 고급 향수·비누 세트와 USB, 칫솔 살균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행복한아파트 앱' 쿠폰함에서 이벤트 응모권 다운로드를 통해 5월 22일까지 (자동)응모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행복한 아파트 앱' 신규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중 경남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관리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빈대인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이번 행복한 아파트 앱 공동 사은 이벤트와 같이 BS금융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호 협력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수은-진주저축銀 "소규모 지역 中企 밀착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진주저축은행과 손잡고 '관계형 금융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은이 저축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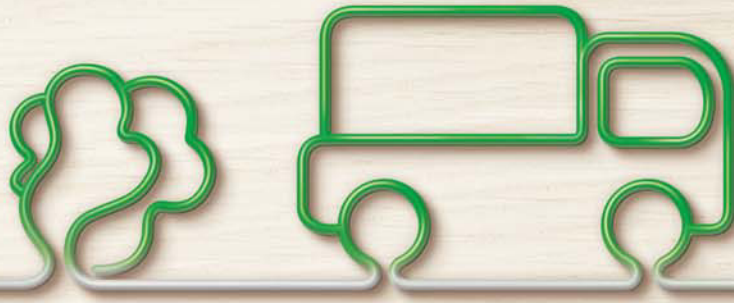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대외거래 지원 노하우와 진주저축은행의 관계금융에 기반한 고객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중소기업에 경쟁력 있는 금융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공동 금융지원과 신용평가 정보 공유,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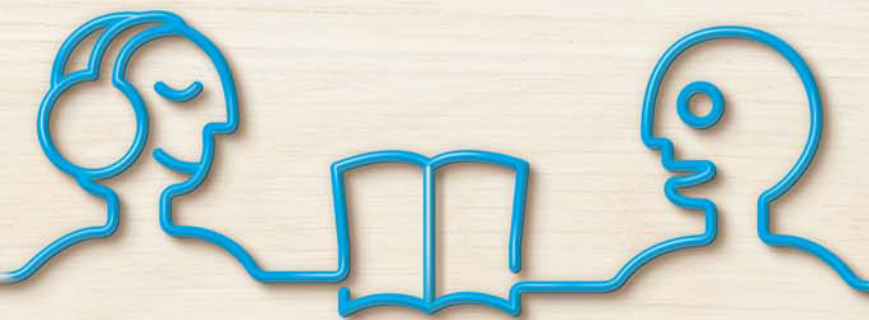
이덕훈 수은 행장(사진 왼쪽)과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가 25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관계형 금융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 제공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서명식을 마친 후 "수은이 관계형 금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진주저축은행과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역은행들과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관계를 점차 확대해 제2금융권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행복을 나눕니다

로컬푸드 사업지원

농민들의 직거래를 돕는 어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농작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농가 소득 확대 및 선순환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김포, 포천, 세종 등 지속적인 지역 확대를 통해
ICT를 통한 농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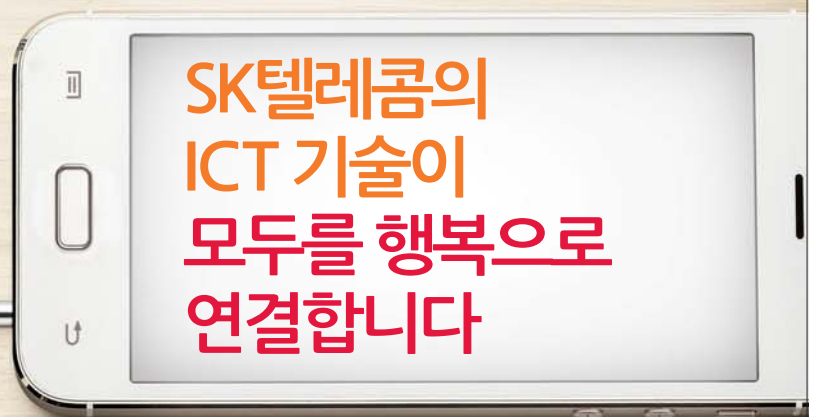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정보 격차를 겪고 있는 30만명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음성 도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된 27만 5천여 건의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까지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ICT 기술이 모두를 행복으로 연결합니다

GiveU

언제 어디서나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금까지 약 20만 건의 참여를 이루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CT를 통해 편리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ICT가
행복을 키우는 직거래장터가 되고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이 되고
행복을 나누는 기부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은 ICT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연합뉴스

코스피, 대외 호재로 1990선 터치

코스피지수가 1990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그리스·옐런발 호재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에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4.35포인트(0.73%) 오른 1990.47을 기록했다.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199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상환 기한 연장 등 리스크 완화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 이에 한국 증시가 동조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 시각) 옐런 의장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FOMC 성명서에서 '인내심(patient)'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향후 두번 정도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불식된 덕분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일 대비 92.54포인트(0.51%) 오른 1만 8209.38을 기록했다. S&P 500은 5.83포인트(0.28%) 오른 2115.49, 나스닥은 7.15포인트(0.14%) 상승한 4968.12에 마쳤다.

그리스 디폴트와 그렉시트 우려감도 해소됐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그리스의 2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상환 만기를 4개월 뒤로 연장했다. 이에 유로존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보라기자 purple@

ETN시장 100일, 일평균 거래대금 8배 증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ETN시장이 개설 100일(24일)을 맞이한 가운데 일평균거래대금이 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월 24일 기준 ETN시장의 일평균거래대금은 8억4000만원으로 100일 만에 8배가 증가했다.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도 증가했다. LP와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LP 거래 비중이 지난해 11월 49.7%에서 '올해 2월 42.7%로 감소하여 일반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수익률의 경우 전종목 100일간 평균수익률은 2.7%로 동기 시장수익률(코스피200) 1.2%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10종목 중 7종목이 상승(평균 5.0%)한 가운데 Perfex 유럽 고배당 ETN이 2월에만 5.1% 상승하여 100일간 누적수익률이 15.9%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 ETN시장은 개설 초기 시점으로 미국과 일본 ETN시장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2006년 미국 ETN시장 개설 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254억2000만원에서 2007년 660억9000만원으로 약 2배 가량 늘었다. 한국의 경우 100일간 8배 증가했다.

2011년 일본의 ETN 시장은 개설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2억4000만원에 달했으나 다음해인 2012년 1억5000만원으로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운용자산 역시 710억원에서 571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한국 ETN시장 운용자산은 지난해 4661억원에서 올해 484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소는 향후 ENT시장 성장을 위해 해외투자 수요를 흡수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TN시장은 3월초 시장 진입 예정인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7개 발행사의 신규상장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발행사별로 10여개 내외의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어 연말에는 ETF 대비 상품수 비중이 미국, 일본을 크게 상회할 전망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대금도 상품 라인업 확대, 마케팅 강화 등으로 올해말 ETF 대비 최소 0.5%(일평균 약 34억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국제유가 바닥론 '갑론을박'

전문가들 방향성 놓고 의견 분분…"바닥론" vs "아직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 바닥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면서 향후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유가가 '지금 바닥을 쳤다'는 분석부터 '올해 상반기 내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 배럴당 45달러 밑까지 추락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반등에 나서면서 유가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국제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57 달러(3.1%) 오른 배럴당 52.78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53.32 달러까지 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심리적인 면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진정됐다"고 보고 있다.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수요·공급 전망에 따르면 초과 공급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수급 측면에서 유가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올해 상반기 내 배럴당 40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국제유가, 아직 바닥 아니다'란 보고서에서 "저유가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상반기 내 WTI가 배럴당 40달러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천정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국제유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공급과잉과 원유재고 해소의 기미는 전혀 없으며 심리적 요인에 따른 과매도 반발 매수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2~3월은 정유 회사들의 계절 유지 보수 등으로 정유 회사들의 원유 구입량이 줄어드는 비수기 시즌"이라며 "향후 원유 재고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과거처럼 배럴당 100달러선에 이르는 고유가 시대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최근 씨티그룹도 국제유가가 최저 20 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씨티그룹의 에드워드 모스 헤드는 "과잉 공급과 유가 저장의 경제적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유가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WTI 가격은 40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아마도 최저 20 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CSI300지수 ELS 등 파생결합증권 5종 공모 유안타증권은 업계 최초로 CSI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ELS를 공모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를 갖춘 파생결합증권 5종을 27일(금)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안타증권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에 민정기 지주 부사장 내정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민정기(56·사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2년 임기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용병 사장의 신한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속 인사다.

민 내정자는 은행에서 국내·해외영업, 여신기획, 국제금융을 담당했다. 지주사에서는 인사, 재무, IR, 리스크관리, 전략기획 등의 다양한 업무를 거쳐 금융업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자경위는 민 내정자가 지주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그룹의 우수한 재무성과 창출에 이바지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및 소통 능력을 갖춰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민 내정자는 배문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서울대 대학원 무역학과를 수료했다. 1987년 조흥은행에 입행해 런던지점장까지 지냈다. 지난 2006년 4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합병된 뒤에는 신한금융 리스크관리팀장,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2010년 신한금융 전무, 2012년 신한금융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날 자경위에서 추천된 민 내정자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민 내정자는 "신한의 브랜드인 '따듯한 금융'에 맞게 회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전임자가 잘 닦아놓은 밑바탕에서 회사의 수익률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지기자

<BMW 첫 전륜구동 다목적차량>

'액티브 투어러' 가볍지만 강하다

높은 강성의 경량 차체에 역동적 주행성능 그대로
4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 장착… 연비 ℓ당 17km

BMW코리아가 25일 인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전륜구동 다목적차량(MPV) '액티브 투어러'를 공개했다.

BMW가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륜 구동 플랫폼을 적용했지만 특유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뉴 액티브 투어러는 새롭게 개발된 섀시와 서스펜션, 차량 제어시스템을 통해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높은 강성의 경량 차체와 짧은 오버행, 낮은 무게중심도 눈에 띈다.

기존 후륜 구동 방식과 달리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져 추가 실내 공간 확보 등 콤팩트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전장 4342㎜, 전폭 1800㎜, 전고 1555㎜를 통해 레저형 라이프스타일 수요까지 끌어들일 예정이다.

실내에는 전후 13㎝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딩 리어 시트를 적용, 무릎 공간을 자유자재로 늘린다. 버튼 하나로 시트를 접을 수도 있다. 적재 공간은 468ℓ로, 최대 1,510ℓ까지 넓힐 수 있다. 접이식 트렁크 플로어에는 다기능 트레이 수납함을 넣었다. 컴포트 액세스 및 전동식 트렁크 기능으로 손쉽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다. 뉴 액티브 투어러는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 여가 문화가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레저형 라이프스타일의 수요를 만족시킬 전망이다.

스포티한 역동성을 최우선시하는 BMW만의 디자인 정체성도 돋보인다. 앞으로 기울어진 특유의 더블 키드니 그릴과 양 옆에 자리잡은 트윈 헤드라이트가 대표적이다. 이외 짧은 오버행, 긴 휠베이스, L자형 후미등, 뒷창문의 호프마이스터킹크 등도 연출됐다.

BMW의 차세대 엔진 패밀리인 새로운 4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도 모습을 드러냈다. 복합연비 17km/ℓ로 콤팩트한 설계와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을 자랑하는 동시에, EU6 배기가스 기준까지 갖췄다.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3.7kg·m로 정지에서 100km/h까지 8.9초에 도달한다. 새롭게 개발된 스텝트로닉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스포티한 변속, 부드러운 조작성, 높은 효율성을 실현했다.

제품은 2종으로 구성한다. 가격은 액티브 투어러 조이가 4190만원, TV 기능과 내비게이션을 추가한 럭셔리는 4590만원이다.

BMW코리아는 신차 출시를 기념, 3월 말까지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연다. 할부금융 유예형은 선납금 1300만원에 36개월 동안 매월 45만9000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영종도=양소리기자 10sound@

삼성 SUHD TV 유럽서 최고 제품 선정

올해 목표치 600만대 판매 청신호

삼성전자의 2015년형 SUHD TV가 유럽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으면서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가 올해 목표로 세운 SUHD TV 600만대 판매 전망도 밝아졌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의 유력 영상 전문매체인 '비디오'는 65인치형 SUHD TV 'JS9590' 모델을 '레퍼런스 어워드' 수상작에 선정했다.

레퍼런스 어워드는 그해의 TV를 평가할 때 최고점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다. 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됐다.

비디오는 1979년 창간 이래 TV 평가 역사상 최고 점수인 93%를 삼성 SUHD TV에 부여했다.

비디오는 SUHD TV의 우수한 밝기, 풍부한 색상과 다양한 스마트 TV 기능 등을 높게 평가하며 "삼성이 나노 크리스털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욱 화려하고 밝게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영국의 '트러스티드 리뷰'는 동일 모델에 대해 10점 만점을 주고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했다.

영국의 'HDTVest' 또한 동일한 65인치형 SUHD TV에 대해 "지금까지 테스트한 TV 중 가장 인상적인 TV"라며 '베스트 인 클래스' 어워드를 부여했다.

영국의 소비자 연맹지 '위치'는 SUHD TV를 실제 사용하며 촬영한 영상기사를 유튜브에 게재했다.

특히 SUHD TV에 적용된 타이젠 플랫폼에 대해 "스마트 TV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요 유럽 IT 매체의 극찬으로 SUHD TV를 포함한 삼성전자 TV 판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UHD TV 시장에서 점유율 57.1%(금액 기준)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양성운기자 ysw@

코오롱 이웅열 회장, 1박 2일 현장경영

인더스트리 4.0 등 산업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 강조

올해 초 목표달성을 위한 철저한 실행을 강조했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24~25일 승합차로 지방사업장을 돌면서 현장 경영에 나섰다.

코오롱은 이 회장이 24일 경기도 여주, 충청북도 충주, 경상북도 구미와 김천의 코오롱 계열사 사업장을 방문하고, 25일에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의 사업장을 각각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1박2일간 코오롱그룹의 지방사업장을 찾아간 이 회장은 "산업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기업 간 거래(B2B)가 주력인 제조업도 이제 소프트웨어·디자인 등 무형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업(業)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발빠르게 움직여 '변화의 문'을 통과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24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근무 중인 임병문 주임과 아들인 임경민 사원, 코오롱중앙기술원 구미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부 연구원인 최동현 선임연구원과 최송연 선임연구원 등을 만나 격려했다. 이 회장은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땀을 흘리는 성공의 일터가 바로 코오롱"이라며 "코오롱 가족들과 성공의 길을 함께 가는 벗이 되겠다"고 말했다.

1박 2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 회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직접 찾아 임직원들과 호흡을 같이할 계획이다. /김종훈기자 fun@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 2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코오롱 제공

카트 없이 '스마트 쇼핑'하는 시대 성큼

SK텔레콤 'MWC2015'서 공개… 올해 국내 상용화 예정

주부 강모씨(35세)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형 마트에서 쇼핑하는 일이 곤혹스럽다. 쇼핑 카트와 유모차를 동시에 끌고 다니는 것도, 계산대 대기줄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도 힘들다. 계산대에 꺼내놓은 물품들을 계산을 마친 후에는 다시 쇼핑백에 넣어야 한다. 두 손은 쇼핑백으로 가득해 아이를 챙길 여유도 없다. 집에 도착해 쇼핑백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와 팔은 천근만근이다.

앞으로 이 같은 쇼핑의 애로점들은 SK텔레콤(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이 개발한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닐 필요도, 계산대에 줄설 필요도 없다. 쇼핑용 스캐너로 물품을 스캔하고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면 끝이다. 구매한 물품은 집으로 자동 배송된다.

SK텔레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경계를 허물고, 대형 마트에서 카트가 필요없는 쇼핑 시대를 앞당긴다. SK텔레콤은 'MWC 2015'에서 매장 방문 전부터 구매, 결제에 이르는 쇼핑 생활 전반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차세대 커머스 플랫폼을 대거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단독 전시 부스 내에 실제 마트·상점과 유사한 쇼핑 환경을 구현해, 관람객이 편리한 미래 쇼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쇼퍼'로 카트는 이제 안녕~

SK텔레콤은 '스마트 쇼퍼(Smart Shopper)'를 이번 MWC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스마트 쇼퍼'는 쇼핑객이 ▲매장 입구에서 바코드 기반의 쇼핑용 스캐너를 지급받고 ▲구매할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후 ▲'주문 조회기'를 통해 주문 내역을 확인·변경한 후 '셀프 결제기'를 통해 결제하면 ▲구매한 물품이 가정에 배송되는 새로운 쇼핑 플랫폼이다.

쇼핑객이 '스마트 쇼퍼'를 이용하면 대형 마트에서 쇼핑백이나 카트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야 할 필요가 없어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계산대에 길게 줄을 서서 구매한 물품을 꺼내고 다시 쇼핑백에 옮겨 담을 필요도 없어진다. 구매한 물품 운반을 위해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가지고 마트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해야 하는 주부들이나 퇴근 후 장을 보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스마트 쇼퍼'는 직접 눈으로 만져보고 실물을 눈으로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고 싶어하는 쇼핑객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모바일 쇼핑 방식과도 차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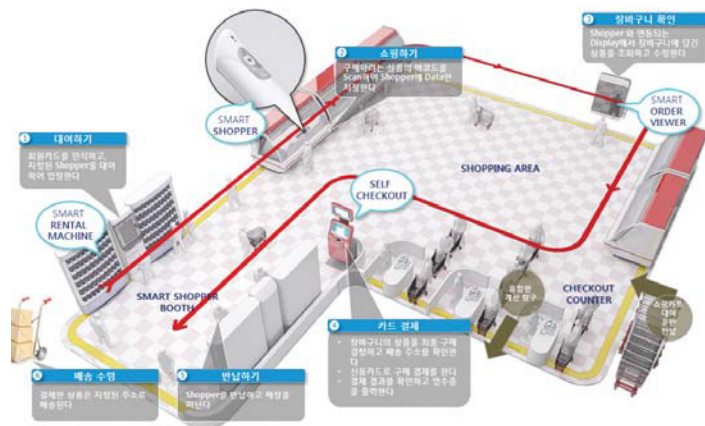
매장 측은 판매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소량의 재고만 비치해 불필요한 재고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소비자와 유통 매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효과가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올해 중 국내 유통 매장 중심으로 '스마트 쇼퍼'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반의 비콘 서비스와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까지 '스마트 쇼퍼'에 접목해 혁신적 쇼핑 라이프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모든 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담아 지갑 두께 줄이는 '스마트 신용카드'

또한 SK텔레콤은 기존 플라스틱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와 크기이면서도 수십 장의 카드 기능을 저장할 수 있는 '스마트 신용카드'를 선보인다.

액정, 키패드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용자는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 신용카드'에 저장된 카드 중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저전력 블루투스(BLE ; Bluetooth Low Energy) 통신 기반이어서 카드 분실시 스마트폰으로 알려 주거나 카드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모바일 카드나 NFC 결제방식은 사용의 편리성에도 불구, 가맹점에 별도 결제 인프라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스마트 신용카드'는 별도 인프라 설치 없이 기존 카드 가맹점의 인프라 그대로 결제와 멤버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상용화 이후 빠른 확산이 기대된다.

'스마트 쇼퍼' 서비스 이용 흐름도. /SK텔레콤 제공

기존 쿠폰 도장 모양의 전자 스탬프 기기인 '스마트 스탬프(Smart Stamp)'는 커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종이 스탬프 카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매장 측에서 '스마트 스탬프'를 고객 스마트폰에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쿠폰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실행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LCD OFF 상태나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작동해 편리하다. 이용자는 여러 장의 종이 스탬프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매장 측은 고객 이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SK플래닛 '샵킥', 비콘 기반 O2O 커머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SK플래닛의 '샵킥(Shopkick)'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쇼핑 플랫폼이다. 블루투스(BLE) 기반 비콘을 통해 고객 근처 매장의 할인·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매장 내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샵킥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최대 백화점인 Macy's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 P&G, L'Oreal 등 글로벌 브랜드 200여 개의 쇼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 확대를 모색 중이다.

특히 피터 설슨(Peter Thulson) 샵킥 독일 지사장이 SK텔레콤 부스 내에 마련된 라이브 프리젠테이션 무대에서 '쇼핑의 미래'를 주제로 O2O 쇼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6년 연속 친환경 서비스 업체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친환경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쌓아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관하는 '그린스타' 항공서비스 부문에서 6년 연속 친환경 서비스로 인증을 받았다고 25일 전했다.

'그린스타'는 친환경서비스 인지도 확립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선정한 약 300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친환경상품 인식도 등을 평가해 상위 15개 업체에 수여한다.

아시아나 측은 "최적의 비행계획 수립, 경제운항 비행절차 실시 등과 같은 '친환경 운항'을 통하여 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친환경항공사로서 서비스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최신형 친환경 항공기도 속속 들여오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존 동급 대비 연료 효율이 20% 가량 뛰어난 A380 1, 2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A380 6대를 비롯해, 오는 2017년부터 A350 30대, 2019년부터 A321 NEO 2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양소리기자 10sound@

'LG G 플렉스2' 글로벌시장 진출

LG전자가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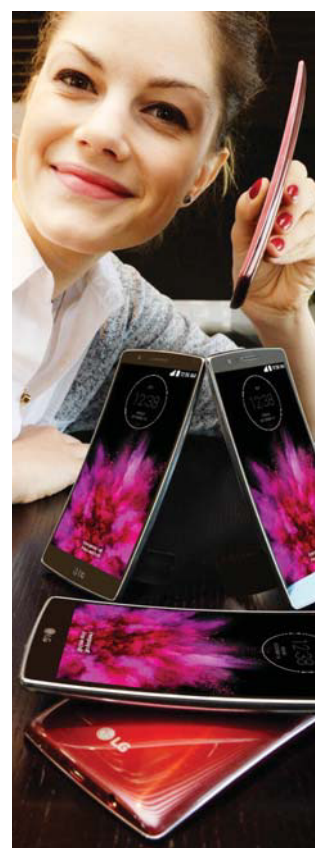
LG전자는 커브드 스마트폰 'LG G 플렉스2'를 3월 미국 스프린트를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G 플렉스2에 대한 해외 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G 플렉스2 출시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G 플렉스2는 CES 2015에서 '리뷰드닷컴'을 비롯한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다수의 상을 받아 10관왕에 오른 바 있다. 이후에도 수 많은 해외 유력 매체들이 잇단 호평을 내놓고 있어 글로벌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포브스는 "G 플렉스2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며, 경쟁제품을 압도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벤치마킹 도구들을 사용해 살펴본 결과 G 플렉스2는 현재 시장에 있는 모든 휴대폰들을 압도할 정도로 빠르다"고 극찬했다.

G 플렉스2는 5.5인치 곡면 디스플레이와 퀄컴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했다. 셀프 힐링(Self-Healing) 후면 커버와 LG전자만의 화학처리 공법을 더한 '듀라 글라스(Dura-Glass)'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외부 충격에 대한 강도도 높였다. '제스처 뷰', '글랜스 뷰' 등 UX(사용자 경험)도 한층 사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전작을 뛰어 넘는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을 갖춘 G 플렉스2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전작도 해외에서 평가가 좋았던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롯데·신라·부영 '3파전' 제주도 면세점 누구 품에

관세청 내일 저녁께 발표…'독점 논란' 관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 이어 오는 3월 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제주도 면세점 한 곳의 새 주인이 27일 발표된다.

25일 유통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제주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심의·평가를 마치고 저녁에 새 특허의 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 면세점을 놓고 롯데면세점·호텔신라·부영건설이 특허를 신청,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에는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두 개의 면세점이 있다. 하지만 다음달 21일자로 서귀포 롯데면세점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제주도 시내 새 면세점의 특허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은 결과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는 서귀포 면세점 구상을, 롯데면세점은 현재 신라 면세점이 자리잡은 제주시에 또 다른 면세점을 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부영건설도 서귀포 중문단지 숙박시설 등과의 시너지를 앞세워 서귀포 면세점에 도전했다.

롯데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롯데면세점 제공

전문 면세점 매장, 제주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사회 이익 환원 등을 약속하며 제주시 면세점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신라는 새로운 면세점을 제주시 외 서귀포에 둬야 제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서귀포 면세점 입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모두 독점과 관련된 논란은 부담이다. 현재 면세시장 과반을 차지하고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절반도 쓸어담은 롯데는 '전국 면세시장 독점', 현재 제주시에 면세점을 둔 신라는 '제주도 면세시장 독점' 논란에서 각각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면세 공룡의 이 같은 약점 때문에 의외로 제주도 시내 새 면세점 운영권이 부영건설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보라기자

'수원 NC터미널점' 문연다

1층에 유아동·리빙, 외식 1900평 규모 들어서… 수원역세권 유통 4파전

경기 남부의 대표적 상권인 수원역 일대가 또한번 들썩이고 있다. 이랜드그룹이 이 지역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유통공룡' 애경(AK플라자)·갤러리아·롯데 간의 불꽃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26일 유통 쇼핑 상권의 격전지인 수원에 지역맞춤형 쇼핑몰인 '수원 NC터미널점'을 오픈했다. 이랜드리테일의 49번째 유통점이다.

수원NC터미널점은 영업면적 2만5000㎡에 지상 6층 규모로 총 신발 SPA 브랜드 슈펜, 신발 편집숍 폴더 등 패션 브랜드 137개를 포함해 153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이번 매장은 주부 등 특정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층에는 유통점 최초로 유아동복 브랜드 29개와 1700㎡ 규모의 모던하우스가 입점했다.

2~4층에는 LF 종합관, 코오롱 복합관 등 신사 복합관 4개와 밀레·네파 등 6개 브랜드로 구성된 아웃도어관, 스파오·미쏘 등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와 유명 브랜드 상설 매장 등이 자리잡았다.

5~6층에는 샐러드바 형태의 외식 브랜드인 자연별곡, 애슐리, 피자몰 등 총 11개의 외식 브랜드를 6400㎡

수원 NC터미널점 /이랜드 제공

규모로 선보였다. 최근 외식 명소로 자리매김한 홍대 외식복합관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수원NC터미널점은 현장 태스크포스(TF)팀의 철저한 고객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와 층별 카테고리를 선정해 기존의 쇼핑몰과는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외식과 쇼핑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역 일대는 유통 전쟁이 치열하다. 롯데그룹은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로 지난해 대형 복합쇼핑몰 '롯데몰 수원점'을 오픈했다. 수원 지역 터줏대감 AK플라자는 지난해 12월 증축 공사를 하고 특2급 호텔 '앰배서더수원'을 오픈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원역세권은 전국 최대 규모의 유동인구를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애경이 주도하던 상권에 롯데·갤러리아·이랜드까지 줄줄이 진출하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쇼핑몰, 백화점을 넘어 차별화가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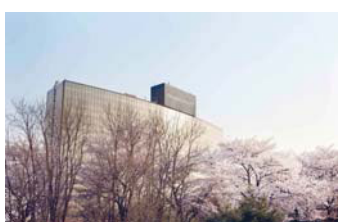
"호텔로 봄나들이 떠나볼까"

피크닉세트 등 다양한 봄 패키지 출시

호텔업계가 따뜻한 봄 날씨와 어울리는 다양한 객실 패키지를 출시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가까운 호텔로 봄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주말 도심 속 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스프링 블러섬 주말 패키지'를 선보인다.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소월길을 따라 완연한 봄의 정취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이번 패키지는 남산 전망의 그랜드 객실 1박 혜택과 함께 즐거운 남산 피크닉을 위한 더 델리의 2인용 테이크아웃 피크닉 세트를 제공한다. 테이크아웃 피크닉 세트는 4종류의 신선한 샌드위치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커피 2잔도 함께 준비된다. 이 외에도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텀블러 증정,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24시간 체육관 및 GX 프로그램 이용, 실내 수영장 이용의 혜택이 마련된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구·커플 대상으로 '올 어바웃 스프링(워커

/그랜드 하얏트 서울 제공

힐의 봄)'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숙박과 조식, 힐스트리트페스티벌 쿠폰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블루밍 워커힐은 숲 속의 별장이라 불리는 더글러스 룸 1박과 타입별 빵·시리얼·우유·주스·커피 등 간편한 조식을 즐길 수 있다.

임피리얼 팰리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마르살라의 봄 (Spring of Marsala)'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에서의 1박 200여 년 전통의 프랑스 프리미엄 홍차 브랜드 꼼빠니 꼴로니알의 홍차수를 사용한 화장품 브랜드 에이트루의 다질링 블랙 티 퍼스트 안티링클 에센스·크림 세트 ·피트니스 클럽·실내 수영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객실은 디럭스 룸·클럽 디럭스 룸·복층 ·코너 스위트 중 선택 가능하다. /김보라기자

1분당 한 개씩 팔리는 샌드위치 갤러리아는 명품관 식품관인 고메이494에서 지난해 10월 랍스터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랍스터바'를 팝업스토어로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월 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갤러리아 제공

신상품

롯데 에너지음료 '핫식스샷'

롯데칠성음료는 활력충전을 위한 신개념 에너지음료 '핫식스샷'을 출시했다.

핫식스샷은 장시간 운전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된 운전자를 포함해 공부나 야근으로 지친 대학생·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음료다.

국내 에너지음료 1위 '핫식스'의 브랜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 성분·맛·용량·패키지를 차별화한 제품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CJ 'H.O.P.E 다이어트 쿠키'

CJ제일제당이식사 전 섭취로 포만감을 통해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신개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H.O.P.E 다이어트 쿠키'를 출시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콩과 우유를 사용해 만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다이어트에 중요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1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유했다. 1봉지 135Kcal, 3000원.

샘표 15년만에 된장 2종

발효명가 샘표에서 15년만에 프리미엄 콩 된장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100일간의 발효 숙성 기간을 거쳐 된장 본연의 맛을 끌어낸 '백일된장'과 간장을 빼지 않고 만들어 더욱 구수한 찌개전용 '시골집 토장' 등 2종으로 샘표의 발효기술이 집양된 프리미엄 된장이다. 백일된장 5230원, 시골집 토장 5650원이다.

8 TONY AWARDS® INCLUDING BEST MUSICAL

음악으로
기억 될
사랑의
순간

원스

MUSICAL

Now Showing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출연 윤도현 전미도 이창희 박지연 주최 예술의전당 SBS 신시컴퍼니
제작투자 인터파크 INT 후원 MAKE UP FOR EVER PROFESSIONAL · PARIS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제일모직 제공

빈폴아웃도어, 신제품 선봬

패션·편의성 강조… 라이프스타일 제품 비중 확대

빈폴아웃도어가 올해도 패션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제일모직의 빈폴아웃도어는 2015년 봄·여름 시즌을 맞아 일상복으로 착용해도 손색없는 아웃도어 룩을 선보였다. 빈폴아웃도어는 올해 라이프스타일 제품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컬러·실루엣 등 패션성을 강조하는 한편 캠프닉(캠핑+피크닉)활동 시에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재킷을 중심으로 치노팬츠·맨투맨·티셔츠 등 토털 코디는 물론 배색·컬러풀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상품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이번 시즌에는 서플렉스 재킷과 경량 바람막이 재킷을 업그레이드 했다. 외관은 면처럼 부드럽지만 강도가 높고 마찰에 강해 나무에 걸리거나 넘어져도 찢기거나 구멍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장시간 착용 시 땀 배출이 수월할 수 있도록 등쪽 부분에 벤틸레이션(Ventilation) 기능의 메쉬 소재를 활용했다.

트레킹·워킹화는 캠프닉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쉽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50여 종의 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기존 고어텍스 신발의 단점인 투습의 문제를 개선해 발바닥에 땀 배출이 가능하게 했으며 불필요한 패턴을 삭제해 착화감을 높였다.

빈폴아웃도어 기윤형 디자인실장은 "빈폴아웃도어는 론칭 이후 차별화에 힘쓰며 어반 아웃도어의 영역을 개척해왔다"며 "아웃도어의 고정적인 패러다임을 깨고 패션성과 편의성을 콘셉트로 빈폴아웃도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아모레 이틀째 장중 300만원

서경배 회장, 정몽구 회장 제치고 이재용 부회장 추격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장중 3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2000년 2월 SK텔레콤이 세운 장중 최고 507만원 기록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300만원이 넘은 기업은 아모레가 처음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4일 장중 최고가 3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5일에도 장중 304만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날 종가는 전일보다 3만8000원 떨어진 293만5000원이다.

주가 급등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지주회사인아모레G(아모레퍼시픽그룹) 대주주인 서경배(사진) 회장의 상장 주식 평가액은 24일 기준 7조9712억8148만원까지 치솟았다.

서경배 회장은 지난해 말에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1조8016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8조832억원)에 이어 국내 주식 부자 3위에 올랐다. 4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5조2117억원)을 제쳤으며 이재용 부회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은 세계 부자 190위로 이건희 회장(88위), 이재용 부회(185위)장과 함께 '세계 200대 부자' 반열에 올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국내와 중국에서의 실적 성장을 지속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면세점과 중국법인의 성장세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다. 매출 4조 7119억원, 영업이익 65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보다 21%, 40.3% 증가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44% 성장한 46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화수와 이니스프리가 신규 매장 출점과 신규 고객 유입 증가로 고성장을 이끌었고 라네즈와 마몽드가 중국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국내에서도 면세 채널 매출이 7030억원을 기록해 작년 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중국인 고객 수는 203% 증가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형지 샤트렌 30주년… 연매출 5천억 브랜드로 육성

스포츠라인 신설, 생활용품도 판매

패션그룹형지가 여성복 브랜드 샤트렌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형지는 25일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샤트렌 론칭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형지는 샤트렌의 향후 10년 로드맵을 통해 연매출 5000억원, 이익율 10% 달성을 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샤트렌을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라이프스타일 제안 브랜드로 운영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상

생활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 시에도 입을 수 있는 '콕티브' 라인을 신설하고 향후 침구·그릇 등 생활 소품도 판매해 브랜드 영역을 확대한다.

올 초 해외사업부도 신설했다. 중국 등 아시아권에 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러시아 모스크바 매장을 시작으로 대만의 가오숑·타이중·따오위엔 등지의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병오(사진) 형지 회장은 "논노에서 여성 캐주얼로 만든 샤트렌을 여성복 단일 브랜드로 3000억원을 올린 '크로커다일레이디'처럼 국내에서 성공하기 위해 인수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올해 중국에 진출해 중국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샤트렌 매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조라는 매출을 달성했으며 제화 에스콰이아를 인수할 단계까지 왔으며 올해는 패션을 넘어 식음료·유통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내추럴 샴푸시장, 청순미 경쟁

애경·아모레·LG생건, 모델 내세워 마케팅

애경·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생활용품 3사의 내추럴샴푸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추럴샴푸를 앞다퉈 출시하며 자연미와 청순미를 앞세운 모델을 내세운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다.

애경은 최근 케라시스 네이처링 브랜드의 새 모델로 성유리(사진)를 발탁했다. 케라시스는 기존에 한채영으로 세련된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온 것에서 탈피해 자연미와 청순미에서 오는 건강한 아름다움 연출에 적합한 성유리로 모델을 변경했다.

아모레퍼시픽 내추럴샴푸 퓨어네이처는 깨끗한 이미지의 한지민을, LG생활건강 오가니스트는자연스러움이묻어나는 문채원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청순미 3파전'을 펼치고 있다..

내추럴샴푸는 실리콘 무첨가, 자연유래 성분 사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최근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신개념 샴푸로 석유추출물로 이루어진 실리콘 성분을 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내추럴샴푸는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오가니스트와 애경의 케라시스 네이처링이 선보인 후,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퓨어네이처까지 출시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소비자 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내추럴샴푸는 전체 샴푸시장의 6%를 넘겼다. 2014년 12월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기자

LS네트웍스,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오픈

LS네트웍스가 온라인쇼핑몰 'LSNmall'을 공식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LSNmall은 스포츠브랜드인 '프로스펙스' '스케쳐스'와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 '잭울프스킨', 자전거 전문샵으로 구성됐다.

특히 'It 아이템'(신제품·한정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Q-Choice'와 당일 최저가 아이템을 제안하는 'Hot Deal', 소량 재고의 초특가 아이템을 제안하는 'Last Order'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식 오픈을 기념해 3월 31일까지 'It 아이템 득템' 오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 프로스펙스 W Lite Zeb과 스케쳐스 딜라이트 와일드팬더 제품을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증정한다.

12층 카페, 루프탑 라운지(Roftop Lounge). /신라스테이 제공

신라스테이 제주 첫 상륙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는 신라호텔의 가치와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에 신라호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신라스테이 제주'가 제주도 관광의 관문인 제주시에 3월1일 개장한다.

스마터 스테이(Smarter Stay)를 콘셉트로 동탄·역삼에 이어 세 번째로 오픈하는 신라스테이 제주는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제주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신라 브랜드다.

신라스테이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피에로 리쏘니가 담당해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객실 복도 중앙에는 로비에서부터 객실 최상층인 11층까지 연결된 긴 아트리움이 있어 시원한 공간감을 준다.

총 301개의 객실에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신라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를 사용해 최적의 수면공간과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또 뷔페 레스토랑·바·피트니스·미팅룸 등 여행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해외 특급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야외테라스와 루프탑 라운지에서 신라의 엄선된 메뉴를 멋진 전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조식과 브런치 뷔페로 운영되며 저녁에는 다양한 맥주와 각종 와인을 가벼운 스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로 탈바꿈한다.

1층 바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벽난로, 소파 등이 비치되어 있어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위스키·칵테일·와인뿐만 아니라 신라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코바(Cova)커피 메뉴도 맛볼 수 있다.

한편 신라스테이 제주는 오픈을 기념해 3월 한달 간 그랜드 오프닝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호텔 신라 수준의 고급 침구가 마련된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신라의 맛을 담은 뷔페 레스토랑 카페의 2인 조식, 신라스테이 스페셜 햄퍼로 구성돼 있다. 스페셜 햄퍼 박스는 신라스테이 시그니쳐 베어와 아베다 핑크리본 에디션 핸드크림 (정품 150ml)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이 증정된다. 제주신라 1박 숙박권에서부터 신라스테이 제주 1박 숙박권, 신라스테이 기념 텀블러까지 신라스테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경품을 만날 수 있다.

3월 한달 간 진행되는 그랜드 오프닝 패키지 가격은 주중 18만9000원, 주말 21만9000원이다. (10% 세금별도)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강강술래, 졸업장 가져오면 냉면이 공짜

백세주 주문 시 '국순당 자양강장세트' 응모권 증정

/강강술래 제공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졸업시즌을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2월 말까지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 서류를 지참할 경우 냉면 2그릇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 백세주를 주문할 경우 국순당 자양강장세트(3만원)를 받을 수 있는 응모권(1매)을 추첨을 통해 준다.

한편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갈비탕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육개장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2만9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중이다.

이와 함께 100% 한우사골곰탕(500㎖·10팩·20인분)도 약 5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하며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는 3만600원에,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는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작업 전 안전점검 꼭 체크

안전보건공단, 철도 건설현장서 안전대책 점검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봄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 강조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영순 이사장 등 공단 경영진이 지난 24일 원주~강릉 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과 관련한 안전관리 현황을 살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지반과 가시설물의 변형 등을 확인했으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지는 등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기에는 작업 전 안전점검과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작년 가장 붐빈 지하철역은 강남역

서울메트로 '2014년 수송·수입 실적' 발표

지난해 지하철 1~4호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간 역은 2호선 강남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1~4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 실적'을 25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1~4호선 전체 이용객은 15억4400만명으로 전년보다 2033만명 늘었다. 매일 423만206명의 시민이 1~4호선을 이용한 셈이다.

또 2호선 수송인원이 일평균 211만명으로 전체 수송인원의 절반 수준인 49.9%를 차지했다. 4호선(84만4000명)과 3호선(80만5000명), 그리고 1호선(46만8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가장 붐볐던 역은 강남역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13만5600명을 기록하며 1997년부터 18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호선 홍대입구역이 10만7300명으로 2위를, 서울역이 10만6300명으로 3위에 올랐다. 게다가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2·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주변 상업시설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역으로 남게 됐다.

반면 가장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호선 도림천역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38명에 불과했다. 2위는 신답역(1587명)이며 4호선 남태령역(1820명)이 그 다음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 15일 1호선 개통 이래 39년 6개월만인 2014년 2월 24일 국내 지하철 최초로 수송인원 400억명을 달성했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지하철을 4000번 이용한 것과 같은 수치다. /황재용기자 hsoul38@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축산물 가격지수 개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물 가격지수 개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업 종사자의 생산·투자 계획의 사 결정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지수'를 산출해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축산물 가격지수는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적용해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유통형태별로 축산물 도매가격지수와 축산물 소매가격지수로 구분해 작성했다.

연구원 측은 "이 지수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직접 조사한 한우고기·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을 비롯해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의 대표성이 높은 가격정보를 가지고 작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며 "향후 생산자 측면에서 품목별 생산·공급 물량의 자율적 조절에 활용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구매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박원순 인사 전횡 되풀이?

신임 기획경영본부장 낙하산 압력 의혹 '파장'
직원들 "개혁 빌미 인사 전횡"…내부갈등 고조

이제 막 100일이 지난 SH공사 변창흠(사진) 호(號)가 벌써 삐걱대고 있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변 사장을 선임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인사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 사장과 박 시장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김우진 신임 기획경영본부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기획경영본부장실을 폐쇄했다. 이어 24일에는 사옥 곳곳에 '변창흠 사장 인사 전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대자보를 붙였다. 이를 읽은 직원들은 "이럴 줄 알았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볼멘소리 봇물, "터질 게 터졌다"

노조의 주장은 이렇다.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와 변창흠 사장은 미리 정해둔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 추천위원회는 서울시 의회 추천 3명과 서울시·SH공사 추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부터 내정자가 있었고, 내정자를 선임하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무성함에도 사장과 인사라인 간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 간부가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했다는 평가위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부로 공석이 된 도시재생본부장 자리를 두고도 시끄럽다. 사내에서는 전임 이갑규 본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짐을 빼기 전부터 서울시에서 낙하산 인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노조 측은 "논란을 일으키며 선임된 김우진 기획경영본부장의 경우 토목전문가로서 오히려 공석이 된 도시재생본부장 자리에 더 어울리는데도 서울시와 변 사장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출신 외부 인사, 공기업 이해 못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던 개방형 직위공모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변창흠 사장은 조직 성과 향상을 내세워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실시했고, ▲장영희 SH도시연구소장 ▲김재인 전략홍보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처장 ▲조준배 재생기획처장 등 4명의 외부 인사를 채용했다.

직원들은 민간 출신 처장(소장)들이 공기업의 문화나 업무는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개혁'만 외친다고 보고 있다.

한 직원은 "외부에서는 공기업이라면 폐쇄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답답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수익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기업과 같을 수는 없는데, 민간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갈등이 있다"고 귀띔했다.

조국영 노조 사무국장은 "사회와 함께 공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조도 개방형 직위공무를 찬성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변 사장의 인사스타일은 공사를 사기업화하려는 것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변창흠 사장 인사 전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SH공사 사옥 1층에 붙어 있는 '변창흠 사장 인사 전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대자보.

GS건설, 인천 청라 첫 테라스하우스 분양

GS건설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첫 테라스하우스에 다양한 특화평면을 적용한다.

GS건설은 다음달 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는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에 1층 전용 테라스와 4층 복층형 테라스 평면(사진)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단지에 적용되는 테라스하우스 평면은 1층 전용 128가구, 4층 복층형 162가구다. 테라스 면적은 타입별로 다르지만 주력 상품인 84A타입의 경우 1층 전용은 20㎡, 4층 복층은 70㎡ 수준이다.

특히 4층 복층 세대에는 서재, 영화감상실, 놀이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0㎡ 규모의 다락방이 별도로 제공된다.

이 외 전용면적 84㎡와 공간활용도는 비슷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 76㎡ 틈새평면도 96가구가 공급된다. 전체의 94%가 판상형 4-bay 설계가 적용됐다.

김보인 GS건설 분양소장은 "4-bay 구조는 기본이고, 테라스·복층평면과 전 세대 오픈형 알파공간 등이 제공돼 청라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 LA1·2블록에 들어서는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35개동, 전용면적 76·84㎡, 총 646가구로 구성돼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연희동 796-11번지에 마련됐고, 76타입과 84A타입의 유닛을 관람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16년 3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호반장학재단, 2015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25일 광주 KBC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

대림산업 "스마트폰으로 집안 관리"

대림산업이 원격으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대림산업은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대쉬(DASH/Daelim Application for Smart Home)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쉬는 기존 벽에 붙어있던 월패드의 모든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 담아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 등을 이용해 집안일을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쉬는 가스·조명·난방 제어 및 가스·전기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월패드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담았다. 건물 입구 및 세대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방문객을 확인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3월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수지에 이 기능을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홍 대림산업 주택사업 담당 전무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IT기술을 주택 상품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 차별화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차등화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대 50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임대료 기준안 소개와 함께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8000만원, 전월세전환율 6%인 경우 기본 보증금은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책정된다(4000만원×6%÷12월).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월세는 30만원으로 상승한다.

이와 함께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며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임대료 기준안은 이르면 오는 4월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제가 이래봬도 허당끼 있는 여자"

'힐러'로 연기 재미 되찾은 박민영

> 20대 여배우 기근 소리 들으면 속상
> 예쁘게 나와야 한다는 생각 버렸죠
> 예능 출연 꺼리진 않지만 불편해요

박민영(29)은 20대 대표 여배우다. 그러나 그는 '20대 여배우 기근'이라는 업계 평가에 대해 "속상하다"고 말했다.

"'20대 여배우 기근'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속상해요. 숨겨진 보석들이 많거든요.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작품이 많고 여성 캐릭터가 두드러지는 작품이 양적으로 부족해요. (제작진은) 인지도가 더 있는 배우를 쓰려고 하죠. 이때 남자 배우보다 20대 여배우에겐 문이 좁아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20대 여배우가 없다고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여배우로서 감사한 입장이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여배우들에게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은 건강하고 유쾌한 이미지지만 예능에는 출연한 적 없다.

"(이미지가) 깨질 거 같아요. 일단 많이 웃고요. 허당끼도 있고 흥도 많거든요. 이상형도 재미있는 남자예요. 촬영할 때도 배우들에게 장난을 치죠. 잘 놀리고 개구진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니 비방용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예능에 출연하는 걸 일부러 꺼리진 않지만 불편하긴 해요. 연기하는 것과 달라 겁나거든요."

또다른 매력은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다. 지난 10일 종영된 KBS2 드라마 '힐러' 송지나 작가도 박민영의 웃는 얼굴을 극 중 채영신에 담아내려 했다.

"원래 채영신은 잘 웃지 못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송지나 작가가 저를 보더니 '웃을 때가 좋다'며 캐릭터를 바꿨죠. 채영신은 부모에게 버려질까 봐 애써 웃고 춤을 추는 친구잖아요. 짠한 심경을 더 진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박민영은 '힐러'를 통해 한계를 깰 준비를 마쳤다.

"'여배우는 예쁘게 나와야 한다'는 걸 끝까지 놓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배우로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거 같았고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꼈죠. 자기 복제, 하기 편한 연기만 하는 느낌이요. '힐러'는 치열하게 저를 던진 작품이에요. 성패를 떠나 저한테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았죠. 힘들법도한데 에너지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어요. 연기 욕심이 더 생기게 됐고 깨지 못했던 벽에 흠집을 내놓은 단계입니다. 차기작에선 엄두내지 못했던 캐릭터를 하고 싶어졌어요. 용기가 생긴 거죠. 제 이미지가 서울 깍쟁이 같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씩씩하고 밝은 역할이 많이 들어와요. 한국 드라마 여주인공 중 진취적인 캐릭터는 많지 않죠. 틈새 시장을 노리려고요. (웃음)"

'힐러'를 통해 연기의 재미를 되찾은 그는 차기작을 정한 상태다. 2015년을 바쁘게 보내겠다는 각오다.

"하반기에 드라마, 영화를 할 거 같아요. 영화는 서른 즈음에 하려고 했어요. 제 연기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2011)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성급했죠. (웃음)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를 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는 돈을 주고 관객이 보러 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완성에 가까울 때 티켓값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영화 마니아 수준이에요. 이제 슬슬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이면 좋겠어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라도 강렬한 역할이요. 올해 연기가 재미있어졌잖아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싶고 배우로서 한 계단씩 올라가려 합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사진/문화창고 디자인/박은지

star bag

독립단편영화로 활동 재개

배우 **이나영**이 독립단편영화 '슬픈 씬'에 출연한다. 영화는 지난해 독립영화 화제작 '족구왕' 우문기 감독과 배우 안재홍이 다시 뭉친 작품이다. '슬픈 씬'이 포함된 '맥무비 프로젝트 –여자, 남자'는 내달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KT&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진행되는 '3월 단편 상상극장'을 통해 상영된다.

브랜뉴뮤직과 계약… 래퍼 데뷔

개그맨 김구라 아들 **김동현**이 힙합 레이블 브랜뉴뮤직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그리(GREE)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소속사는 "올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동현은 김구라가 지어준 별명 '동그리'에서 따온 'MC그리'로 방송 활동을 했다.

'더러버'서 오정세와 동거

배우 **류현경**이 엠넷 새 미니드라마 '더러버'에서 오정세와 동거한다. 작품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2030 커플 네 쌍의 리얼 동거 이야기를 옴니버스 구성으로 담았다. 류현경은 방송, 제품 리뷰 전문 블로거 역을 맡아 평범한 30대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다. 오는 4월 중 방송된다.

디지털 싱글 '누구세요' 발표

보이그룹 **대국남아**가 디지털 싱글 앨범 '누구세요'를 25일 정오 공개했다. '누구세요'는 멤버들의 음색과 가창력을 최대한 살린 어쿠스틱 기반의 미디엄 템포곡이다.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작곡엔 크레이지 사운드의 똘아이박을 필두로 신또, 피터팬이 참여했다.

가요계 트렌드는 男男-女女 콜라보

남녀 듀엣에서 탈피… 동성 조합 새 흥행공식으로

소유×정기고의 히트곡 '썸'에서 시작된 컬래버레이션 열풍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남녀 가수의 만남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동성 아티스트간의 협업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난해 12월 윤상은 '남녀 콜라보' 홍수 속에 '남남 듀엣'을 앞세웠다. 그는 인피니트 성규, 다빈크, 팀 등 후배 남자 가수들과 호흡을 맞춘 '더 듀엣' 프로젝트로 남녀 조합에서 탈피했다.

'남남 콜라보'는 보이그룹 멤버들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샤이니 종현을 시작으로 씨엔블루 정용화, 트로이 한해 등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각각 자이언티, 양동근, 디미너 등의 아티스트와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팀의 색깔을 잠시 내려두고 다른 소속사나 레이블의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힙합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이언티는 종현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같은 레이블 아메바 컬쳐 식구인 크러쉬와 '그냥(Just)'을 발표해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JYJ 김준수도 '남남 콜라보' 대열에 합류한다.

김준수는 다음달 3일 발표 예정인 정규 3집 '플라워(Flower)'에서 도끼, 타블로, 양동근 등의 남자 가수들과 함께 작업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에 나얼의 자작곡도 실린다"며 "화려한 피처링 라인업만으로도 이슈를 모은데 이어 나얼의 곡 선물로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남 콜라보'가 올 상반기 가요계의 트렌드로 안착한 가운데 여자 가수들의 만남도 눈에 띈다. 걸그룹 에프엑스의 엠버는 최근 첫 솔로앨범 '뷰티풀(Beautiful)'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타이틀곡 '셰이크 댓 브라스(Shake That Brass)'엔 소녀시대 태연이 함께했다. 톡톡 튀는 엠버의 랩과 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뤘다. 엠버는 KBS2 '뮤직뱅크'에선 같은 회사 후배 그룹 레드벨벳의 웬디와도 호흡을 맞추며 '여여 콜라보'의 진수를 보여줬다. 엠버의 앨범은 국내 음반 차트 1위는 물론 미국빌보드 월드 차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한 레이블 관계자는 "지난해 '남녀 콜라보'가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룬 반면 '남남' 혹은 '여여' 콜라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노년에 찾아온 설레는 사랑

박근형·윤여정 주연 '장수상회' 4월 개봉

박근형,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등이 출연하는 영화 '장수상회'(감독 강제규)가 오는 4월 개봉을 확정했다.

'장수상회'는 70세 연애초보 성칠(박근형)과 그의 마음을 뒤흔든 꽃집 여인 금님(윤여정),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연애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만든 강제규 감독의 신작이다.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시리즈를 통해 로맨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박근형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윤여정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진웅, 한지민, 황우슬혜, 문가영, 엑소 찬열 등 젊은 배우들도 함께 했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티저 예고편과 캐릭터 스틸도 공개됐다. 티저 예고편은 박근형,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등 세대를 넘나드는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을 담아 눈길을 끈다. 캐릭터 스틸에서는 기존의 무게감을 벗고 서툰 연애초보로 변신한 박근형과 소녀 감성의 금님으로 돌아온 윤여정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장병호기자

닐 블롬캠프 '에일리언5' 감독 낙점

시고니 위버 출연 관심

'디스트릭9' '채피' 등을 연출한 닐 블롬캠프 감독이 '에일리언' 시리즈의 차기작 감독으로 낙점됐다.

닐 블롬캠프 감독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에일리언5'의 콘셉트 아트를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나의 다음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외계인들의 강제 수용소라는 독특한 설정의 SF영화 '디스트릭트9'으로 주목 받은 닐 블롬캠프 감독은 2013년 맷 데이먼 주연의 '엘리시움'에 이어 개봉을 앞둔 '채피'까지 세계관이 뚜렷한 SF영화로 할리우드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에일리언' 시리즈를 대표하는 배우 시고니 위버가 '채피'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일리언5'에서도 함께 작업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닐 블롬캠프 감독의 신작 '채피'는 다음달 12일 개봉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로봇 채피와 로봇의 진화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그린 SF 블록버스터 영화로 휴 잭맨, 샬토 코플리, 시고니 위버, 데브 파텔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온라인 핫 이슈

베이비카라 소진 숨진 채 발견… 투신한 듯

베이비카라의 소진(사진)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화단에 소진이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진은 최근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진은 지난해 케이블채널 MBC뮤직 '카라 프로젝트: 더 비기닝'에 출연해 '베이비카라'로 얼굴을 알렸다. 약 5년 동안 DSP미디어에서 연습생 시절을 보내며 가수의 꿈을 키워 왔으나 한 달 전 소속사를 나왔다.

/김지민기자

'대세' 걸그룹 AOA, 日도 접수한다

두 번째 싱글 '사뿐사뿐' 발매

걸그룹 AOA가 일본 활동을 재개한다.

AOA는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 '사뿐사뿐(Like A Cat)'을 25일 발매했다.

이번 싱글엔 지난해 11월 국내 발매돼 큰 인기를 모았던 동명 타이틀곡 '사뿐사뿐'을 포함해 '단 둘이(Just the two of us)'와 '엘비스(Elvis)'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돼 있다.

AOA는 지난해 10월 싱글 '미니스커트(Miniskirt)'로 일본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일본 기념일 협회가 AOA의 일본 데뷔일인 10월 1일을 'AOA의 날'로 지정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일본 내 한류 걸그룹 돌풍을 주도했다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또 AOA는 지난해 연말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한 FNC엔터테인먼트 합동 공연 'FNC킹덤'에서 '사뿐사뿐'을 불러 현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지민기자

2015 이은결 더 일루션

THE ILLUSION

VIP패키지석을 위한 특별 혜택!

공연후, 이은결과 사진촬영 및 기념선물 증정!

3, 4인 가족권 30% 할인

VIP, R석에 한함, 증빙자료 지참

2015. 3. 4(수) ▸ 4. 12(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시간 평일 8시 /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티켓가격 VIP패키지 13 만원 / VIP 10 만원 / R 8 만원 / S 6 만원 / A 3 만원

조기예매 20% 할인! (3월2일까지 예매시)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1577-3363 | 주최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 제작 이은결 LEE EUN GYEOL PROJECT

올해 프로야구 '괴물 신인' 나올까

삼성 구자욱·한화 김민우·넥센 김정훈 등 주목

프로야구 한 해 농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스프링캠프다. 이 시기 각 팀 코칭스태프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대주를 꼽으며 흐뭇해한다. 올해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급부상한 신인들이 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선수는 삼성 외야수 구자욱(22)이다. 2012년 삼성에 입단한 그는 그동안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아 보지 못했다. 첫해 2군에만 머물렀고, 2013년 상무에 입대해 두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 류중일 감독이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오키나와 캠프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고, 연습경기에서도 연일 맹타를 휘둘러 기대감을 높였다. 189㎝의 큰 키에 외모 또한 수려해 팬들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구자욱은 "호리호리한 체구에 힘을 붙이고자 스프링캠프에서 체중 증량을 목표로 했지만, 강도 높은 훈련에 자꾸 살이 빠져 걱정"이라며 "다른 목표는 없다. 1군에 진입해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화 신인투수 김민우(20)도 주목해야 할 신인이다. 김성근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아 일본 고치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그는 실전훈련에서 팀 내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며 집중 테스트를 받고 있다.

자체 홍백전과 대외경기 포함 7차례 연습경기에 등판해 16이닝을 소화하며 6실점(5자책)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 2.81로, 16이닝을 던지는 동안 13개의 삼진을 잡으며 볼넷을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KIA와의 연습경기에서는 8회 구원등판해 2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을 뿐 탈삼진 2개를 포함해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1km였지만 공이 묵직했고, 낙차 큰 커브까지 가미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계형철 코치는 "현재 우리 팀에서 가장 좋은 공을 던지고 있다"며 "폼을 교정하고 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다. 공 자체가 무겁고 배짱도 좋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넥센 투수 김정훈(24)도 주목할 만하다. 선발로 전환한 셋업맨 한현희의 빈자리를 메울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직구가 150km에 육박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민우 김정훈 구자욱

43세 전 복싱챔프 최용수 복귀 선언

"중년에 희망 주고파"

만 43세로 전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최용수(사진)가 링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5일 최용수가 이틀 전 연락해와 이번 주안으로 선수 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최용수가 링으로 돌아오는 것은 2003년 1월 세계복싱평의회(WBC) 세계타이틀전에서 시리몽콜 싱마나삭(태국)에게 판정패한 뒤 12년만이다. 격투기까지 포함하면 2006년 12월 K-1에서 일본의 마사토에게 기권패한 후 8년여만의 링 복귀다.

최용수는 "복서가 아닌 K-1 선수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링을 떠난 점이 아쉬웠다. 복서로 은퇴하고 싶고 침체된 한국 복싱계에 활력소 역할도 하고 싶다"며 글러브를 다시 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년은 직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아직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용수는 199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복서로 이름을 날렸다. 18살의 늦은 나이에 복싱을 시작해 21살이었던 1993년에 한국 챔피언에 올랐고 이어 3개월 만에 동양챔피언이 됐다.

1995년 10월 아르헨티나 원정에서 우고 파스를 10회 KO로 꺾고 세계권투협회(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에 올랐다. 통산 전적은 34전 29승(19KO) 4패 1무.

최용수의 복귀전은 8월 치러질 예정이다. 상대는 일본인 베테랑이나 그보다 20살가량 어린 한국 챔피언이 거론되고 있다.

/김민준기자

강정호 태블릿 PC '삼매경'

영상 돌려 보며 상대팀 투수 분석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입단한 강정호(28·사진)가 태블릿 PC '삼매경'에 빠졌다.

강정호는 이달 중순 미국 플로리다 주 브래든턴에 있는 스프링캠프인 파이리트 시티에 입소하기 전 구단에 투수 정보를 담은 영상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정규리그에서 상대할 상대팀 투수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입소와 함께 자료를 받은 강정호는 태블릿 PC에 이를 옮겨 매일 훈련이 끝난 뒤 훑어보며 주요 투수들의 습성을 머리에 담는 중이다.

24일(현지시간) 훈련을 마친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상대할 팀의 주요 투수들이 어떤 공을 던지고, 구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 타석에서 이들의 공을 지켜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빅리그 타자들의 파워는 생각했던 만큼 좋았다"면서 "다만 나는 이들을 따라가려 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타격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비에 대해서는 "한국 야수들과 비교할 때 수비 기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깨는 확실히 좋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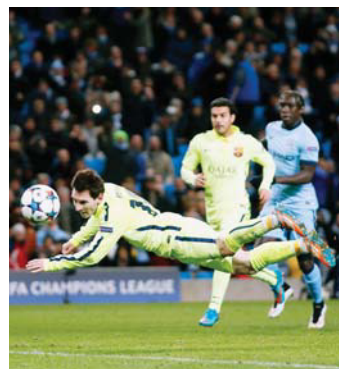
/김민준기자

수아레스 2골… 메시 헛심

EFA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맨시티 2-1 제압

스페인 FC바르셀로나가 루이스 수아레스의 활약을 앞세워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바르셀로나는 2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2-1로 꺾었다. 수아레스가 2골을 넣으며 맹활약했다.

원정에서 승리를 챙긴 바르셀로나는 다음달 19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전반 12분 날카로운 슈팅으로 바르셀로나 공격의 포문을 연 수아레스는 4분 뒤 각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왼발 슛을 해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30분에는 호르디 알바가 올려준 크로스를 문전으로 달려들며 오른발을 갖다대 재차 골망을 흔들었다.

맨시티는 후반 24분 세르히오 아궤로가 다비스 실바의 패스를 받아 골대 왼쪽 위를 뚫으며 한 골을 만회했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선발로 출전, 풀타임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유벤투스(이탈리아)는 도르트문트(독일)를 홈에서 2-1로 제압했다.

/김민준기자

'우결' 열애설 비난할 권리 없다

기자 수첩
전 효 진
<문화스포츠부 기자>

리얼 예능 MBC '우리 결혼했어요'와 '진짜 사나이-여군특집2'가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중인 홍종현과 김소은은 최근 연달아 열애설이 났다. 두 사람 모두 열애를 부정했지만 시청자는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진짜 사나이-여군특집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송 전부터 온라인은 제2의 헤리가 누가 될 것인 지로 시끄러웠다. 제작진은 "윤보미는 '여군특집1' 헤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시청자는 출연자의 어리버리한 모습, 생뚱맞은 앙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설정 의혹을 제기했다.

프로그램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12년 가상 부부로 출연한 오연서와 이준은 '우리결혼했어요'가 스캔들 논란을 겪을 때마다 강제 소환됐다. 당시 오연서는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이장우와 열애설이 난 뒤 해명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이준과 헤어져야 했다.

사적 공간의 한계선인 방 안까지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리얼 예능은 점점 은밀해지고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결혼했어요'도 한 침대에 가상 부부가 누워있는 걸 보여준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설정이다.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진짜 커플로 발전한 가상 부부는 없다. 리얼 예능도 편집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잊어선 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 다르지 않다. 배우의 역할은 카메라 안에서만 충실하면 된다. "'우리 결혼했어요'에 대한 의무, 책임감을 알고 있다"고 열애를 부정한 김소은의 입장이 현명했다. 열애설이 났다고 배우를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여군특집' 역시 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의 성장을 보여 주는 예능이다. 그들은 입대가 아니라 군대를 일정기간 체험하고 있다. 출연진이 훈련 받는 과정과 그들이 보여주는 전우애까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시청자는 리얼 예능도 방송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실내의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도의 보호 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 내 이동… 현재 부서에 남을까요
상부 지시 따르고 동료와 트러블 주의

잘살장 남자 69년 4월 19일 음력 동틀 무렵

Q 선생님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저도 직장 내에서 출세를 바라지는 않고 그냥 가늘고 길 게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한 부서에서 일 해오다 보니 현재의 업무에는 자신이 있는 상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 내에서 적극적인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움직이는 것이 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 부서에서 앞으로의 활로를 찾는 것이 제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담 신청합니다.

A 맡은 일을 정확히 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여 신뢰가 쌓이고 상사의 신임을 받으며 주위에 인정을 받습니다. 머리회전이 빠르고 인정을 많이 베풀며 유하지만 철쇄개금(鐵鎖開金)이 작용되는 내면의 냉철함으로 자칫 2015년~2017년까지 잘못된 구설이 따르기도 하니 좀 더 겸손해지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식록(食祿)이 두터운 편이므로 의식주에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주인데 좀 더 발전을 위하여 강한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 언어)을 활용하여 언어공부를 하면 2018년 이후 결과를 활발하게 사용함을 암시합니다. 다양한 업무에 밝다는 것은 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겠으나 관성(官星:나를 극하는 오행)운이 49세 잠시 침체기로 들어가므로 무리하게 직장 내에서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5년 이동이 상부의 지시라면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회사 업무를 통한 자신의 계발에 노력하는 것이 행복한 직장생활이 됩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습득된 지식과 경륜을 토대로 49세지나 50세 이후부터는 많은 노하우를 은행에 예금 하듯 착실히 쌓아세요. 하고 회사 업무를 통하여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유대강화를 잘하여 회사에서 큰 재산이 되고 평탄한 직장인이 되도록 하세요. 운에서 정관(正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직장)과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가 원만하므로 의지할 곳이 반듯하니 노후 퇴직 때까지 착실히 하십시오.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겠으나 상관(傷官:관성인 직업을 상하게 함)이 을미년(乙未年)에서 들어오게 되니 직장동료들과 트러블 또는 도로에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6		5		
			3				4	8
		9			5		6	
2					6		7	1
7	4		8					5
	5		1			2		
9	7				8			
		1		9	7			

	1						9	
3						7	8	
			2	8		4		
			6	9		5		
		7	4		5	3		
		4		2	3			
		1		3	8			
	8	3						9
	6						4	

스도쿠 정답

8	2	4	7	6	1	5	3	9
5	6	7	3	2	9	1	4	8
3	1	9	4	8	5	7	6	2
2	8	5	9	4	6	3	7	1
1	9	3	5	7	2	6	8	4
7	4	6	8	1	3	9	2	5
6	5	8	1	3	4	2	9	7
9	7	2	6	5	8	4	1	3
4	3	1	2	9	7	8	5	6

4	1	8	3	7	6	2	9	5
3	2	6	5	4	9	7	8	1
9	7	5	2	8	1	4	3	6
8	3	2	6	9	7	5	1	4
6	9	7	4	1	5	3	2	8
1	5	4	8	2	3	9	6	7
5	4	1	9	3	8	6	7	2
2	8	3	7	6	4	1	5	9
7	6	9	1	5	2	8	4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2월 26일 (음 1월 8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거래는 나중으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60년생** 운이 따르니 즐거움이 있습니다. **72년생** 새로운 동료나 협력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상대를 너무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소

49년생 그 동안의 노력에 결실이 있습니다. **61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73년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85년생** 새로운 일보다 현재 하는 일이 더 좋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4년생** 좋은 운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습니다. **86년생**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현재 추진하는 일에 결과가 있습니다. **63년생** 부부, 이성운이 길하니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75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8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하루입니다.

52년생 여행이나 외출은 미루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곧 해결됩니다. **88년생** 주의의 말보다는 본인의 판단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53년생 다치거나 분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여행이나 외출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77년생**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합니다. **89년생** 점점 운기가 좋아지니 계속 노력하세요.

54년생 결과가 좋다 하여 낭비하면 안됩니다. **66년생** 사업운이 좋고 하는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78년생** 신경쓸 일이 많으니 머리가 아픕니다. **90년생** 지금은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55년생 계속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79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고 명예가 오릅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으니 이득이 있습니다.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윗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닭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리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58년생 휴식이나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0년생** 새로운 사업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82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욕심보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59년생 노력이 결실을 얻어 기쁩니다. **71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83년생**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95년생** 겸손하게 대처하면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초벌 부추 올해 첫 수확 25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신안마을 들녘에서 농민들이 언 땅을 뚫고 나온 토종 초벌 부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끊어진 덕수궁 돌담길 '완생'

영국 대사관 170m 구간 연결 위해 이르면 내달 현장조사…보행로·담장 설치

서울시가 영국대사관 부지에 막혀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개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현장조사와 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영국대사관이 현대사관 부지를 매입한 후 끊긴 덕수궁 돌담길 구간에 보행로와 경계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산책로로 명소가 된 덕수궁 돌담길은 총 1100m이지만 영국대사관이 있는 170m 구간은 지난 130여 년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이 영국대사관을 방문해 개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같은 해 11

월 박원순 시장도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와 오찬을 하며 구두로 개방에 합의하면서 돌담길 전면 개방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달 27일 영국(외교부)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초 대사관 경내를 측량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보행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행로는 폭 3~6m, 연장 170m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돌담길 보행로 주변에는 영국 근위병과 조선 수문장을 배치, 운영해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영 국제 문화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 방침 입장은 정해졌고 영국 측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달 말에 회신이 오면 다음달 중 시에서 측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 확대

고용부, 재해 예방 위해 170억원 투입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5일 경기도 용인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서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일용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인원이 지난해 2만5000명에서 올해 17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고용부는 시스템 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 규모도 7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기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 역시 안전관리 조직 확대와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자전거도 안전이 우선이죠"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회원들이 25일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를 달리며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연합뉴스

단국대 '무역진흥 연수' 실시

단국대학교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천안캠퍼스에서 아프리카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역진흥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진흥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전수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DR콩고와 세네갈, 튀니지 등 아프리카 3개국의 통상 산업분야 고위 공직자와 관세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수단은 교육을 비롯해 삼성전자 서초홍보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기아자동차·평택세관·현대제철 등의 산업시찰과 한국민속촌·경복궁 등에서 한국문화 체험 문화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인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보 ▲ 기획조정관실 통상협력T/F팀장 김명호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장인재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박정배 ▲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이상진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장 강석연 ▲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전종민 ▲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정용익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김춘래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영옥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이남희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주선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장 권기성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이윤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이승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장 김형수 ▲ 서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강철호 ▲ 부산지방청 시험분석센터장 윤혜성 ▲ 경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홍영표 ▲ 경인지방청 수입식품분석팀장 장영미 ▲ 광주지방청 운영지원과장 김현선 ▲ 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

■ KAIST

▲ 교학부총장 박현욱 ▲ 연구부총장 이희윤 ▲ KAIST연구원장 정윤철 ▲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김정회 ▲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윤정로 ▲ 교무처장 김도경 ▲ 연구처장 김동수 ▲ 국제협력처장 맹성현 ▲ 학술문화원장 박종철 ▲ 공대부학장 양경훈 ▲ KAIST클리닉원장 정범석

■ 경기도교육청

◇ 4급 전보·승진 ▲ 행정국장 선계훈 ▲ 북부청사 교육2국 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 신석금 ▲ 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 오문순 ▲ 북부청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행정국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 행정국 복지법무과장 최승범 ▲ 행정국 시설과장 전연익 ▲ 행정국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기획정보부장 허정

■ 춘천교대

▲ 교육대학원장 장병기 ▲ 교무처장 이승복 ▲ 학생처장 겸 생활관장 황명자 ▲ 기획처장 김홍래 ▲ 도서관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 이주한 ▲ 정보전산원장 겸 교수학습개발원장 박문환 ▲ 초등교육연구원장 구봉진 ▲ 대외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서순식 ▲ 입학처장 류지영 ▲ 교육연수원장 겸 평생교육원장 조순이 ▲ 윤리교육과 학과장 이종훈 ▲ 국어교육과 학과장 조은숙 ▲ 사회과교육과 학과장 홍미화 ▲ 교육학과 학과장 추연구 ▲ 수학교육과 학과장 서동엽 ▲ 과학교육과 학과장 박헌우 ▲ 실과교육과 학과장 양정혜 ▲ 음악교육과 학과장 정진원 ▲ 미술교육과 학과장 최순규 ▲ 체육교육과 학과장 배성제 ▲ 영어교육과 학과장 박미애 ▲컴퓨터교육과 학과장 임병춘

■ 경복대

◇ 행정 ▲ 대외협력부총장 장문학 ▲ 총장비서실장 김정수 ▲ 기획처장 김경복 ▲ 기획부처장 이동수 ▲ 홍보센터장 박주현 ▲ 학사지원처장 배희호 ▲ 학사지원부처장 겸 NCS센터장 정세환 ▲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이현숙 ▲ 입학처장 이원호 ▲ 산학협력처장 정인준 ▲ 산학협력부처장 이상헌 ▲ 취업실습지원센터장 김영수 ▲ 경복인성특성화컴퍼스: 본부장 김영진 ◇ 부속기관 ▲ 도서관장 진영서 ▲ 정보지원센터장 신효영 ▲ 학생상담센터장 이현숙 ▲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장 박주현 ▲ 국제교류협력센터장 이원호 ▲ 방송학보사 주간 이근우 ▲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김영진 ▲ 건강관리센터장 장은정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양경희 ▲산학협력단장 정인준 ▲ 창업보육센터장 박주현 ▲ 평생교육원장 윤영훈 ▲ 영어아카데미 원장 커티스 ▲ 남양주 요양보호사교육원장 함도훈 ▲ 포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강정희 ▲ 관광교육원장 권승혁 ◇ 학부(과)장 ▲ 공학부장 이승원 ▲ 컴퓨터정보과장 정환익 ▲ 토털웹서비스전공 주임교수 정환익 ▲ 임베디드전공 주임교수 안철훈 ▲ IT보안과장 신효영 ▲ 친환경건축과장 정순오 ▲ 공간디자인과장 김승배 ▲ 건설환경디자인과장 이승원 ▲ 관광경영학부장 함도훈 ▲ 국제관광과장 최미선 ▲ 항공서비스과장 정수연 ▲ 호텔관광과장 서태수 ▲ 유통경영과장 함도훈 ▲ e-비즈니스과장 변상석 ▲ 세무회계과장 차동준 ▲ 공공인재학부장 박정민 ▲ 복지행정과장 문영규 ▲ 사회복지과장 문영규 ▲ 유아교육과장 유연화 ▲ 영유아보육과장 박정민 ▲ 의료보건학부장 이애경 ▲ 간호학1과장 이애경 ▲ 간호학2과장 정안순 ▲ 치위생과장 송윤신 ▲ 작업치료과장 정원규 ▲ 임상병리과장 김대은 ▲ 물리치료과장 양경희 ▲ 의료미용과장 송다해 ▲ 의료복지과장 장원태 ▲ 예술학부장 성기혁 ▲ 실용음악과장 최찬호 ▲ 뮤지컬과장 유원용 ▲ 뷰티아트과장 김수미 ▲ 약손명가미용과장 김수미 ▲ 준호헤어디자인과장 김수미 ▲ 시각디자인과장 조윤형 ▲ 산업디자인과장 박성연 ▲ 교양학부장 김영진

■ 경주시

▲ 보건소장 전점득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행정지원실장 이종월 ▲ 도시숲조성과장 직대 최일부 ▲ 건강증진과장 직대 임성희

부고

▲ 태석균씨 별세, 정호(전 우원개발 대표)·영정·혜정씨 부친상, 김동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씨 장인상 = 25일 오전 4시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4호, 발인 27일 오전 6시30분. 02-2030-7909

▲ 정종웅(인천언론인클럽 부회장·전 CBS 기자)씨 별세, 정민교(인천신문 기자)씨 부친상 = 25일 오전 9시, 인천 송림동 청기와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27일 오전. 032-583-4444

▲김예순씨 별세, 이은우(산업은행 잠원지점장)·진우·정우씨 모친상, 이강복(세무사)씨 장모상 = 25일, 경북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54-550-7948

▲ 이준영(전 청주시장)씨 별세 = 24일 오후 9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30분. 043-269-7211

▲ 정영애씨 별세, 손장권(국립해사고 행정실장)·중권(한화투자증권 재경2지역사업본부장)·정권(에어 앤 투어스 대표)씨 모친상 = 24일 오전 8시, 경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9시. 055-750-8488

▲ 김정남씨 별세, 차용범(부산 벡스코 상임감사)·순옥(전 정심라이온스클럽 회장)씨 모친상 = 25일 오전,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7일 오전 7시 051-607-2979

정부 금연정책 '파란불'

26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서 흡연 경고그림 통과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금연정책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가 심의·의결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제조사가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담배제조사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전 담배제조사의 포장지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실제로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이런 경고그림 도입과 병의원의 금연치료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과 올해 초 담뱃값 인상 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조사와 판매업체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담배제조사는 물론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압적인 정책은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이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복지위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세종서 엽총으로 3명 살해 50대 남성 자살 25일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엽총을 쏴 3명을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의 시신을 경찰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판결 확정되면 보험사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자살 시에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사망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을 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지난해 3월 박씨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 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 약관을 보고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보험사들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약관을 수정했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가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용기자

중학생에게도 마약 판매한 일당 검거 일본에서 대량의 신종 허브마약 원료를 밀반입해 제조한 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중·고등학생 등에게 팔아 온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서 압수한 마약 완제품과 주사기 등. /연합뉴스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선포

대통령과 단독회담 요구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파업을 선포하고 4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를 의제·부문·지역별 투쟁주간으로 정했다. 25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을 위한 총파업을 차례대로 진행한 후 노동절인 5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또 총파업에 앞선 3월 말 전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4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16일 선포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조직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4대 요구사항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를 비롯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제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을 갖고 단독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경찰서 유치장 인권 보호 미흡"

인권위, 시설 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시설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전라권 등 3개 권역 총 10개 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대상으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유치장은 본관동 1층이나 지하에 설치돼 외부 자연 햇볕을 받지 못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구조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5개 경찰서 유치장은 비상구 표시가 없거나 연결 통로가 물건으로 막혀 있는가 하면 외부로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아 위 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 규칙에 따르면 폐쇄적 공간에 설치된 유치장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화재 등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로 나가는 비상구와 피난 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권위는 "유치장 내에서도 기본적인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조현정기자 jhj@

내달부터 등기 기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기기록 발급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25일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이미지 폐쇄 등기부'와 '수작업 폐쇄 등기부' 등을 발급할 때 명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모두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산화 이전의 종이 등기부를 스캔한 '이미지 폐쇄 등기부'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면 미리 주민번호를 가린 뒤 발급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